

연 80억 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현실화 미지수

산업연구원, 광주 공청회서 기금 조성 방안 제시 나주시 불참 속 '편향된 용역, 계약 해지' 초강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회가 나주시의 불참 속에 개최됐다.

보고회에선 발전기금 조성 규모, 사용처, 기금 출연시점 등 주요 내용이 제시됐지만, 기금 조성 주체인 나주시가 용역 수행 방식·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용역 발주를 해지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용역 수행 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재단설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은 기금 조성 규모,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놓고 해당 지자체인 광주·전남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연구원은 기금 조성 규모는 연간 최대 80억원의 범위에서 지자체간 협의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6년간(2014-2019) 순세입(2131억원) 가운데 순세출(1640억원, 정주환경 조성에 사용)을 제외한 490억원을 6년으로 나누는 금액이다.

기금 출연 시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소급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금사용처에 대해선 혁신도시 조성 성과 확산에 우선 사용하고, 기금 관리는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금위원회(가칭)가 맡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최종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다고 해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전기금 조성 범위 등 용역 수행 방식을 두고 줄곧 반발해온 나주시가 이날 공청회 불참은 물론 3개 지자체가 공동 발주한 용역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고 통보하는 등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기금 조성 방식과 규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 조성 범위에 대해 지방세에 한정보다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9조)과 배치되는 데다,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액 이상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용역 결과라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협약과 관련법에 근거해 기금

조성 범위를 조정하고, 나주시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금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용역기관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나주시 때문에 공청회가 연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법과 나주시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세 지자체 모두가 납득할만한 현실적인 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오는 29일 나주시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런 것이 있으면 공청회에 일단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협의해야 하는데 아예 나오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며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주시와 협의해 조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세 지자체는 발전기금 조성 및 재단 설립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조성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논란 끝에 세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발전기금 조성 및 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용역을 의뢰했다.

/김현호 기자 khh@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동구 금남지하도상가를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금남지하상가·대인시장 상인과 현장 소통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15일 금남지하도상가와 대인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주간' 행사로 추진됐다.

이 시장은 금남지하도상가를 찾아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점포를 둘러본 뒤 총금·금남지하도상가 상인대표와 동구청장, 상가활성화 사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상인대표들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감면 ▲빈 점포 활용한 고객 문화체험공간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 및 특성화사업 공모 선정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인시장으로 이동해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상인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각각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경쟁력 삼아 상생해야 한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5개 시장, 34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6개 시장, 82억원) ▲특성화사업(7개 시장, 32억원) 등 노후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K-조선' 재도약 전담조직 운영

'조선인력 수급 지원 TF팀' 구성

전남도는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에 맞춰 취업 지원 TF팀'을 구성해 1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현대상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5개 조선기업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5개 유관기관을 비롯해 관련 시·군이 참여한다.

최근 선박 수요 증가에도 외국인 인력 고충 위축, 청년층 일자리 기피 등으로 조선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TF는 이러한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15일 첫 회의에서 도내 기업은 기술연수생 훈련수당 증액, 청년고용지원금 확대,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절차 간소화, 내국인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 입국 절차를 수행하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표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통한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9월 말까지 조선기업, 유관기관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인력 수급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10월부터는 정부 정책 건의 등 TF에서 논의된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조선업 신규인력 양성 및 유입을 위해 2019년부터 전남도가 시작한 '조선업 기능인력 훈련수당'도 지원한다. 위기지역 청년일자리 지원, 조선해양 친환경특화기술 공유포럼 등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총 1160명의 조선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규제강화에 대응해 전남도는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450억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415억원) 등 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연말까지 목포 남항에 선박용 에너지저장 시설(ESS) 시험평가용, 이동식 전원 공급시스템 충전시험용, 연구동 등 부지 3만3000㎡ 규모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 육상 연구인프라 시설도 착공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1. 9.25(토) ~ 9.26(일) 2일간
정음사예술회관
주최 | 주관 정음시 사|정음사문화재단제전위원회

<p>9.25(토) 채수이레 10:00 - 정음사공연 우물</p>	<p>9.25(토) 여인제례 11:00 - 영부사 사무</p>	<p>9.25(토) 축하공연 18:40 - 정음사예술회관</p>	<p>9.26(일) 정음사가요제 15:00 - 정음사예술회관</p>

| 경관조명 | 9.14(화) ~ 11.14(일) - 정음사공원 ~ 정동교 ~ 돌하다리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으로 개최 합니다.

행사 참여 희망자 사전 예약 (예매처 : 티켓링크 무료) 9월 10부터 예약가능

민선 7기 광주시 상복 터졌다

일자리·출산 정책 등 성과 155차례 수상, 54억 확보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집중해온 일자리, 출산·보육 등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각종 전국 평가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 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한 상반기 우수행정·정책사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를 기치로 추진한 출산·보육 정책이 높이 평가됐다.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도 입증했다.

같은 달 대한민국 실패극복 사례 공모 대전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헌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찬반이 엇갈린 2호선 건설을 놓고 시민참여 속의형 공헌으로 합의를 끌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차 '캐스퍼'로 대표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정책도 단연 돋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 지난 9월 한국 정책학회 주관 정책대상에서 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정책상을 차지했다. 지자체 주도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 노력이 호평을 끌어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서만 중앙 부처 주관 평가에서 155차례 수상해 54억원 상당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 도시공사는 2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뒷받침도 있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전 공직자가 힘쓴 결과이자 성과"라면서 "더 투명하고 청렴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민들름은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 졸업생에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취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 졸업반 학생 중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 모두에게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5일 증서 수여식을 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최일 동산대 총장, 장학금 수혜 대학생을 대표한 학생 6명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전남도민과 대학생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이 장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급한다. 장학금은 학생 1인당 60만원씩이며 총 지급 규모는 34억원으로, 21개 대학 5603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중등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배준씨씨는 "취업 준비생에게 대비와도 같다"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모님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공부에 집중하는데 부담이 됐는데 주어진 장학금으로 필요한 문제집을 구입하는 등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